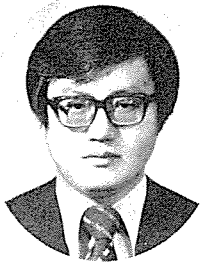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신년사 정진우



새로운 각오와 멋진 계획으로 일년을 설계할 계획년 아침해가 밝아왔습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 지시길 빌며 온 가정에 화목함과 사랑함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협회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며 나의 발전이 곧 협회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협회의 모든일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넘겨 신년을 맞이하면서 협회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일은 면허를 취득하고도 아직까지 취업을 하고있지 못한 많은 회원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열려져 있지 못한 사회적 여건이 그리고 수요를 감안하지않고 무턱대고 배출만 하는 문교정책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도 7개교에서 600여명의 졸업생이 배출되며 작년에 불합격된 사람들까지 면허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약 800여명이 시험을 치르게되며 그중 50%의 합격율을 생각하면 400명 이상의 회원이 불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숫자적으로 불어나 회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쁜 일이나 그들의 취업장은 그 수에 따라가지 못하게 됨으로 취업의 압박

감은 더욱 가증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중재하여 적정수의 배출과 취업장의 확대에 힘써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살림살이가 흥부 놀부전에 나오는 자식 많은 흥부집안 처럼 되어가니 제비다리 분질러서 박씨라도 얻어볼 놀부심사가 나기도 합니다만 일이란 순서가 있고 합리성을 찾아야 하며 현실과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애달라 할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계속 배출되는 후배들의 사회적 진출이 좋아져야 선배들도 대우를 받게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올해에도 협회에서는 계속 물리치료 개설허가에 대한 의료 제도의 법적 |선 문제에라든지 의정장교의 T.O증대 및 현재 간호장교가 물리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 해외인력수출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 또한 각 기업체에게 주관하는 체육관계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문제들을 개선하고 추진하여 회원들의 취업관계를 넓혀볼 것입니다. 또한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물리치료 숫가에 대한 현실화를 꾀하여 현재 누락된 치료 항목이나 비현실적인 숫가를 보다 현실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 하겠으며 이러한 문제의 개선은 취업장을 넓히는 간접적인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협회의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하여 왔으며 그로 인하여 사무적인 처리가 점점 체계화 되어가고 있고 지난해에는 전화를 가설하여 회원과 협회사무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였으며 서울 5개지부,경기 3개지부,지방의 7개지부 도합 15개 지부가 점점 나름대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직사회란 다 그러하겠지만 지역이 발달하여 각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면모를 갖추고 대외적인 활동을 할때에 그 힘은 배가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지난해까지 650만원이라는 기금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사무실확보를 위한 기금모금운동을 벌릴 계획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이미 확보된 기금에 조금만 더 보태면 사무실정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할때는 회관도 있어야겠지만 우선 올해는 독립된 사무실로 만족하겠습니다. 잊지마시고 협조바라겠습니다. 작년에는 협회비를 90%이상 납부하여 주셨고 몇년씩 밀렸던 분들도 거의 완납해 주셨습니다. 회비는 협회의 유일한 재원이며 가입한 회원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주장을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아온 지난 3년간 우리의 입장을 감안하여 회비를 인상하지 않았었습니다. 12,000원 하면 많아보여도 실상 월 1,000원이라면 부담갈 정도의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년내내 내어주시면 푼돈이되어 재정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협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말까지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12월 이전에 회비를 완납해 주셔야 다음해에 예산을 꾸모았고 짜임새있게 집행해 나갈수 있다는 사실도 다시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영구회원이 되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중에 또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9월중에 부산에서 개최될 학술대회입니다. 작년 대구에서

보여주셨던 뜨거운 열기와 단합된 모습을 재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해운대와 태종대오륙도를 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논문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비도 조금씩 저축해두고요. 국내에서의 학술대회는 1984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할 세아 물리치료사 연맹 국제회의에 더욱 도움을 줄수있게 될것입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몇가지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데 그것은 지아비와 저어미의 만남이요 그의 자식되어 가족이 됨이 또 하나는 종교적인 만남이요 또다른 하나는 직업적인 만남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숙명적인 만남이 결국 자신의 인생사를 형성하는듯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국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한 우리들의 만남은 어찌할 수 없는 명적인 만남이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동료지간이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협회라는 동우리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어딜가나 물리치료사를 만나면 반가울 것이고 할애기가 있을 것이고 도움을 청하고 도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계해년 이해가 다가고 또 이어지는 해가 계속되어 우리가 이 직업을 다할때까지 서로가 의지하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믿음속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본협회 회장)

1982.10.29 임시이사회 개최

참석자 : 정진우, 오경환, 배승학, 강정구
장 소 : 을지병원 물리치료실
안건 및 토의내용 :

1982.11.20-21 1983년도 제 1차 정기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

참석자 : 정진우, 김용주, 강정구, 백진, 김형섭, 오종택, 함용운, 배승학, 오경환, 황환익, 김정숙, 민영학, 양성주, 김기호, 채수성, 팍대덕, 신흥철, 박정기, 배성수, 노영철
안민규 이상 21명

장 소 : 호텔 올림피아
토의내용 : 1) 회관건립기금 모금 회원 1인당 10,000원씩 납부
2) A.C.P.T총회준비에 대한 문제
3) 회원보수교육 년 12학점 이수
4) 기타

1982.12.18 수원지부 망년회

장 소 : 남서울호텔
참석자 : 회장 정진우, 부회장 강정구, 총무 이사 배승학

1983. 1. 5 1983년도 본협회 사무식 개최

장 소 : 서울대학병원 물리치료실
참석자 : 정진우, 강정구, 김용주의 19명

1983. 1.21 제 2차 정기이사회

안건 : ① 국가고시 실시에 따른 문제점
② 연수위원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③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건
④ 교육관리위원회 소집의 건

참석 : 정진우, 강정구, 배승학, 안민규, 오경환, 박찬익, 김정숙, -감사: 함용운, 남세부 전북지부장 신흥철.

< '83년 제 1차 정기이사회 및 지부장 연석회의 >

일 정 : 1982.11.20-21

장 소 : 호텔 올림피아

참석자 : 정진우, 김용주, 강정구, 백진, 김형섭, 오종택, 함용운, 배승학, 오경환, 황환익, 김정숙, 민영학, 양성주, 김기호, 채수성, 팍대덕, 신흥철, 박정기, 배성수, 노영철, 안민규 이상 21명

정회장님 : 올해 학술대회를 경북지부에서 별탈없이 행사를 마치게 된 것에 협회임원 및 지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학술대회는 경남지부인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

었으며 그에 대한 중앙회의 자원도 방법적으로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의 운영도 회원과 임원이 혼연일체되어 서로 협조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수교육문제는 보수교육 시간을 년 12시간으로 하고 세부시행세칙은 협회 방침에 따라 준비하여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치과기공사 협회가 모인 의리기사연합회에서 만든 약이 보사부에서 통과되면 시행이 되는데, 년 12평점으로 그에 대한 대상은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면 취업해있든, 미취업이든간에 전원이 이수해야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미취업회원도 1년에 12평점을 이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연수교육에 제외되는 대상은 신체적 이상자, 질병자, 해외연수자, 해외이민자이다.

보수교육을 위한 강의는 1시간에 1평점, 실습 2시간에 1평점, 학술대회 1회참가시 4평점이 되며, 보수교육시 강의자는 2평점, 각 지부별로 중앙회에서 인정하는 월례회 모임을 1시간에 1평점, 월례집담회시 강의자(구연자)는 2평점, 또한 협회에서 인정하는 관련학회에 참가시에도 1평점,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2평점, 그 논문이 회지에 게재되는 사람은 3평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정부 각 기관 및 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참가자도 1평점, 협회에서 인정하는 해외연수 1회당 4평점, 협회에서 위탁하는 연수교육을 1평점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골자는 회원 전원이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의 이수학점은 년 12평점으로 한다.

만약에 년 12평점이 넘으면 다음해에 그만큼 빼주는 것으로 한다. 또, 김형섭씨와 양성주 대의원회 의장이 의료보험 관계로 관계자를 만나러 가셔서 의료보험에 관계되는 얘기는 그분들이 돌아오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승학 사무국장님 :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관리공단 회보에 나타난 물리치료 관계자료는 1982.7.15 일자 제 72호에 실린 사-14 전기자극치료는 장비와 물리치료사가 있는 요양원급 기관에서 동통제거, 마비치료의 목적으로 갈바닉 스티물레이션 또는 화라딕 스티물레이션을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사례를 보면 1. 견갑관절, 유착성퇴막염, 다발성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등에 전기자극 치료는 합당치 아니하므로 불인정한다.

2. 건염에 초음파 치료(사-5)와 전기자극치료(사-14)의 산정시 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디스크, 만성요통등에 전기자극 치료와 견인요법을 동시에 산정시 전기자극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3 적외선치료를 보면 사-1에서 사-5를 복합

적으로 치료시 한가지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고 지루성피부염, 원선, 아토피성 피부염에 적외선의 치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982. 8. 15 일자 제 74 호에 실린 사-11 맞사지와 사-14 전기자극치료에서 맞사지요법이란 열치료, 견인요법, 운동요법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행하는 물리치료인바 동일상병, 동일부위에 대하여 사-15 신체장애 운동요법과 사-11 맞사지를 시술할 경우 각각 인정될 수 있으나 뇌출혈, 급성요부염좌, 급성디스크, 전관절 슬관절등 관절강직에 사-11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럴경우 맞사지를 하면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14와 사-11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사-14는 통상 2주 정도 실시한다. 사례를 보면 슬관절 강직 또는 급성요부 염좌로 내원시마다 사-1, 사-3 적외선, 사-11 맞사지, 사-15-가 신체장애운동요법 산정은 적용착오로 사-11 맞사지를 조정한다.

신체장애운동요법, 적외선, 표재열치료를 해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3가지와 맞사지를 한꺼번에 치료할 때는 사-11 맞사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신체장애 운동요법에서 복잡한 것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는 합동심사 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에 의해서 인정하고 발표된 자료로 이에 대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시 반복시키려면 자료를 수집하여 다시 상정하여야하며 사전에 의료보험 공단과 조잡이 통합해서 연합회가 운영되므로 거기에는 사단법인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의 회장이 자문위원이 되므로 위촉한후 선정되도록 하여 물리치료사도 회의에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김형섭 선생님과 양성주 대의원의회장이 의료보험 관계자를 만나시러 가셨으니 잘될것으로 믿습니다.

정희장님 : 의료보험수가 조정문제중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치료의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았더니, 타당성이 있는 산출근거를 조사해 보았는데 예를들어 온습포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인건비, 세금, 적정이윤, 적정세금 등을 조사한 결과 한번 Hot pack 을 해주는데 410원이 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자료는 재활의학과에 올라가 있으나 41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험수가 120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더받아야 한다. 또한, 초음파 치료시는 다원가계산하여 보았으나 780원이 나왔는데 의료보험에서는 250원인데 780원으로 해달라고 했으며, 그다음 신체장애운동 요법인데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시설비와 임대료(병원관리료), 인건비 등등해서 간단한것 15,500 원, 복잡한것 2,200 원, 특수한것 3,000 원을 받아야 한다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수가가 문제가 되는 것을 재활의학과회와 타협중에 있으나 결과는 더 두고 봐야 알겠으나 타당성이 있는것은 서류화하여 우리의 권익을 찾아 보자는 작업을 요즈음 중앙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협회 살림살이에서 재정상의 문제인데 협회비를 올 11월말까지는 납부해주어야 내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런 재정상의 문제를 아셔서 소속지부 회비를 걷어 중앙회에 70%를 납부하시고 또한 지부할당금 30%로 더욱더 나은 지부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런 재정상의 문제가 협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지부장님들께서 인식하시어 각 지부 소속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회회관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하여 회원 1인당 배 10,000원씩 모금할것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신홍철 전북지부장 : 물리치료사의 독립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회관건립기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각 지부별로 모금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김용주 부회장님 : 년회비를 내고 또 기금으로 10000원씩을 내는것은 조금은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A.C.P.T총회를 위해서라면 하루 빨리 모금운동을 하는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각 지부의 집담회시 1인당 1000원씩 받으면 부담이 적게 같것 같으며, 이자리에 참석하신 임원들은 1만원씩 내주셨으면 합니다.

김기호 강원지부장 : 강원지부의 경우는 월례회모임을 년 1회밖에 실시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1인당 1만원씩은 부담스러우나 중앙회에서는 협회 회원을 각각 상대하지 말고 각 지부장을 상대로 하면 각 지부장의 책임하에 회원 스스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용주 부회장님 : 회관 건립기금모금운동 만큼은 각 지부장들에게 맡겨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오종택 감사 : 말하자면 중부 본회의 회원이 약 50명 이하하면 500,000원을 목표액으로 하여 지부장 및 총무가 기일내에 책임지고 중앙회에 납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배승학 사무국장님 : 회관 건립 기금모금을 하는데 1인당 10000원씩이 부담이 되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 되지않는 회원의 차이가 있으므로 지부마다 모금 목표액에서 지부장의 권한으로 회원들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을수 있는것으로 하고, 또한 지금까지 영구회비가 회관 건립 지금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그속에는 영구회비를 걷어도 그 모금의 목표에 포함되도록 하면 좀더 쉽게될수 있지않나 한다.

임성수 남부지부장 : 부회장님과 사무국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지난 월례회 모임시 회원들에게 3000원인가 5000원씩을 걸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회비때문에 못참석한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집담회시에도 회비를 걷기 때문에 참석 못하는 회원이 있으므로 1인당 1만원씩 못박아 정하는 것보다는 회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이 그만큼 모든회원이 참석하는 의미에서 1인당 5000원 이상씩 임의대로 지부장의 재량껏 회원들을 인식시켜 모금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중앙회에서도 회비에 모금운동 광고를 내에서 회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협조하겠읍니다.

그리고 지부당 모금 목표액을 정해주면 지부장 재량껏 집담회시 나누어서 받든, 바자회를 해서하든 영구회비를 납부하도록하든 그 방법만큼은 지부장 재량에 맡기도록 하겠읍니다.

배승학 사무국장 : 그러면 기타 토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지부마다 필요로 하는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첨부했으나 모든 회의록은 회의록 예시에서 회의명칭, 일시, 장소(시, 구, 동 어느장소), 참석자, 안건, 경과 사항등을 기록하고 안건마다 토의된 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인 사무실의 비치서류는 각지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분기별마다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공문서 접수발송대장은 중앙회에서 간 공문뿐만 아니라 지부에서 발송한 공문등을 처리 해주어야 한다. 참고서류철은 사무국에서 주고 받은 편지나 중앙회에 문의했던 자료들을 철해 두어야 하며, 전화상이나 구두로 한 내용

도 메모를 해두어 매일 업무일지를 기록하여 지부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부회칙 및 정관 기타 제규정은 사단법인 대한 물리치료사 협회 정관이 있고 운영규정이 있고 지부회칙이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각종 회의록을 비치해야 되며 또한 월례 모임시 회원에게 받은 회비등에 따른 지출내용은 근거가 확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각종 참고 서류철은 다른기관에서는 초청장이나 안내장들도 철해두어 다음에 필요로 할때 사용하도록 한다.

기타 일반서류철에는 영수증철, 회원회비수납대장, 세입 지출대장에는 수입, 지출결의서가 첨부되고 입금 및 지출시에는 입금, 출금전표를 작성해야 되며, 계약서 및 지불명세서등 영수증을 꼭 첨부해야만된다.

그리고 의료기사 보수교육 지침안내는 각지부에는 회원 보수교육대장을 설치해야 되며 각 개인에게는 개인대로 교육 기록카드가 있어야 되므로 이런 서류등은 중앙회에서 제작하여 일괄적으로 각지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지부에서 처리하시던중 잘못하시는 사항은 서신으로라도 문의하시면 중앙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진우 회장님 : 기타 안건이 있으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부회장님 : A.C.P.T총회준비로 연내에 실시 일차 장소, 총회비용 등을 결정하여 준비해야하고 총회에 참석할 인원은 대략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회장 및 사무국장 20~30명, 일본에서 20~30명해서 외국 회원이 50~60명이되고 우리회원이 참석하게 되므로 너무 거창하게도 너무 소홀하게도 생각해서는 안되므로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준비하도록 하면됩니다.

정진우 회장님 : 우리가 하면 된다는 신념은 요번 학술대회 시에도 경험한 것처럼 추진방법만을 의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승학 사무국장님 : A.C.P.T총회시 참가인원은 대략 150~200명으로 보고 식사를 포함한 회의장소 비용이 300만원정도를 예산하나 방사선사협회의 예를보면 1인당외국인의 경우 5만원, 국내회원은 7만원정도의 참가비와 협회회원들은 찬조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배성수 경북지부장 : 경북지부의 호칭을 “대구 경북지부”로 바뀌었습니다. 중앙회에서도 이를 승낙하시어 “대구 경북지부”로 호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회지 원고료문제는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진우 회장님 : 예산상의 문제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산이되는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대덕 수원 지부장 : 보수교육에서 년 12학점에 미달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배승학 사무국장님 :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발급받지 못하면 보사부에 중앙회에서 10월말까지 현황 보고를 하면 즉각 그 이듬해에 3개월 이하의 취업정지 명령이 내려간다. 취업정지 명령받은자가 계속 취업하고 있을 경우 그 소속기관장은 즉 병원장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취업정지 명령이 3회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되고 면허취소시 다시 면허증을 재발급 하려면 그해에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열심히 이수해서 협회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보사부에다 면허를 재발급해 주십시오 하고 상정하면 심사하여 면허증 재발급이 되어진다. 또한 미취업자도 취업정지 명령에 해당되며 3번이상 취업정지 명령을 받으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항에도 저촉됨을 잘알아야 한다.

정진우 회장님 : 이제 토의를 마치고 각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비 납부자 〉 (1983. 1. 18 일)

김여경 (No. 303 83년)	신정남 (No. 1085 83년 미반)
천경희 (No. 491 82년)	석옥경 (No. 1124 83년 미반)
이명혜 (No. 31 82년)	인혜경 (No. 933 82년 미반)
김선숙 (No. 219 81.82년)	이상빈 (No. 103 81년)
이현숙 (No. 578 82년)	원종일 (No. 472 81.82년)
홍완성 (No. 593 81.82)	임경희 (No. 102 83년)
김두호 (No. 600 82년)	전덕래 (No. 72 83년)
김순자 (No. 609 82년)	염명애 (No. 310 83년)
이동숙 (No. 618 81.82년)	성인신 (No. 294 83년)
김순희 (No. 654 80.82년)	유양숙 (No. 666 83년)
이영희 (No. 658 82년)	이정근 (No. 469 83년)
장준옥 (No. 707 82년 미반)	강정구 (No. 195 83년)
이우규 (No. 757 82년)	김정숙 (No. 104 83년)
송규현 (No. 803 82년)	최경임 (No. 772 83년)
김현정 (No. 979 83년 미)	배순덕 (No. 523 80.81.82년)
이은실 (No. 1075 83년 미)	

〈 신입회원 명단 〉

석상령 (No. 983 82년)
윤희명 (No. 355 77년, 78.79.80.81.82년 미취업반액)

〈 영구회원 명단 〉

송미숙 (No. 1201) ₩ 120,000 김정희 (No. 504) ₩ 120,000
최치욱 (No. 16) ₩ 120,000 김경희 (No. 587) ₩ 120,000
김정숙 (No. 146) ₩ 120,000 곽대덕 (No. 804) ₩ 120,000

〈 회지 광고비 〉

새한판매상사 ₩ 30,000 국제전자 ₩ 250,000
신진전자 의로지상사 ₩ 300,000 국제양행 ₩ 200,000

〈 운영비 찬조 〉

김형섭 회원 전화구입 기금찬조 ₩ 500,000

광 고

대한 스포츠임상의학과 제 2차 학술대회
일시 : 1983. 1.29 (토)
13:30~18:15
장소 : Plaza Hotel, 덕수홀
(시청앞 소공동)
“많은 회원들의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 Saudi - Arabia 카타르 하마드 병원 ” 물리치료사 모집
모집인원 : 약 80명
자 격 : 1) 1943~58년 출생의 남·녀 (미혼)
2) 경력 5년이상
3) 영어 해득
접수기간 : 1983. 1.31~2.3일까지 (2차모집)
접수장소 : 해외개발공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198~36(신한병원내)
사단 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